

세월호라는 사건과 ‘인류학적’ 현장 사이에서

이 경 목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수료)

세월호 사고와 세월호 사건은 실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나는 후자의 비중이 이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 (박민규, 『눈먼 자들의 국가』)

1.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월호의 인류학’

세월호는 현재진행형이다. 혹자는 침몰한 세월호가 실패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은유라 말한다. 그렇다면, 세월호의 현장은 대한민국 전체일 것이다. 끝나지 않고 계속 중인 세월호는 어디에 어떻게 무엇으로 계속 되는가?

일산신도시에서 학교까지 2시간의 버스통학 중 띄엄띄엄 ‘세월호’를 본다. 작년 여름 일산 신도시에 여럿의 장소에 걸려 있던 노란리본과 ‘특별법 제정’, ‘잊지 않겠습니다 -xx엄마, 시민’이란 게시물은 사라졌다. 20분 후 화정동 근처에 ‘진실을 인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대문구에 들어서니 낯선 중학교 교문 위에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라는 문장이 걸려 있다. 흔치 않은 모습이다. 1시간 후 도착한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텐트가 서있고 많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바다 속에는 여전히 9명의 국민이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반대.’ 한산한 새벽의 광장에서 며칠 전의 전경 버스 차벽을 떠올렸다. 학교에 도착하니 여기저기에 세월호 1주기에 맞춘 학술행사 포스터들이 있다.

세월호는 한국 바깥까지 이어진다. -어리둥절한 뉴스였지만- 세월호 1주기에 조선닷컴은 연예란에서 맨유의 홈페이지의 문구를 상세히 소개했다. ‘여전히 세월호를 기다립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²⁾ 지구 반대편의 축구단은 세월호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맹세의 말을 실었

2) “16일 맨유는 한글판 홈페이지 첫 화면에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달고, 세월호 1주기를 추모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맨유는 “1년 전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476명의 승객을 태웠고, 공식적으로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여전히 실종됐다”라며 함께 안타까움을 전했다. 맨유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모든 구성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슬픔에 빠진 모든 분들과 마음을 함께 한다. 여전히 세월호를 기다립니다.”라며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슬픔에 빠진 한국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맨유 세월호 추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맨유 세월호 추모, 추모합니다.” “맨유 세월호 추모, 고맙네요” 등의 반

고 한국의 혹은 경기도를 지역 연고로 하는 어떤 스포츠구단도 세월호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신지 않았다. 경기 중계 도중 선수들의 유니폼에 새겨진 노란 리본이 보인다.

세월호는 끝나지 않았으나, 모든 곳에서 같은 속도, 같은 강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이에게 세월호는 이미 끝났다. 누군가에게 세월호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세월호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이 뒤영김과 충돌이 세월호 사건의 ‘현장’일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세월호에 대한 많은 글들이 나왔다. 유명한 인류학자들의 글도 몇 개 보인다. 세월호에 대한 애도를 환대와 생성이라 의미부여한 조한혜정이나, 박근혜 정권은 다른 무엇보다도 세월호로 기억될 것이라 피력했던 엄기호, 공동체의 최소한의 조건이 고통스럽게 죽어간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현정의 글은 명문(名文)이며, 한국사회의 지식인이나 인류학자로서 세월호와 ‘관련해’ 전해야 하는 정확한 메시지이다. “그러니 지겹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세월호로 기억될 것이다.”(엄기호 2015), “그때까지 우리는 아직 잊을 권리가 없다.”(이현정 2015)

그러나, 세월호의 인류학은 오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을 현장(field)으로 삼고, 대형 선박사고가 아닌 상호 화해하기 어려운 입장과 반응이 충돌하는 ‘사건’임을 드러내며, 이전에는 ‘없었던’ 앎과 지식이 솟아나온 바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아직 없다는 의미이다. 이와 유사하게 전규찬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나와야 하는 세월호에 대한 연구들을 풀어쓴 바 있었다.

“세월호 항해궤적을 더듬고 침몰과정을 정리하며 원인을 사실적으로 분석한 저널리즘. 과적 지시를 내린 자본을 폭로하고 항해 허가를 내준 공권력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세월호라는 대참사를 신자유주의 자본국가라는 근원적 원인으로 래디컬하게 연결시킨 논문. 우리가 승선한 세월호, 즉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버리면서 위태롭게 항해해왔으며, 바로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생명의 희생을 초래할 것인지를 총체적이고 역사적으로 조사한 책자. 세월호 사건 인식의 스케일을 지정하고 그 복잡한 의미와 성격을 광폭으로 정리하며, 세부 탐침의 방법들까지도 강구하는 리포트.”(전규찬 2014:157)

세월호의 인류학은 전규찬이 제시한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논문, 책자, 리포트 모두에 걸쳐 있을 것이다. 아니 세월호에 대한 ‘좋은’ 글은 위의 여러 기획과 그 사이에 있다. 세월호와 같은 압도적 사건 앞에서 학문분과들의 방법론은 하나하나는 그 한계를 노출한다. 세월호의 인류학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세월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람이 보이는’ 장기간의 현지조사에 의한, 연구대상자와의 라뵘(rapport)에 기반을 둔 연구일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학의 전통적인 연구방식과 방법론은 세월호의 인류학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³⁾ 세월호의 현장은 1년 전에 여객선이 침몰하여 여전히 가라앉아 있는 사고해역만이 아니며, 한국 전

음을 보였다.”(조선닷컴)

3) 앞으로 세월호 희생자의 유가족의 구술사나 그들이 겪은 고통을 그들 곁에서 고통스럽게 추적하고 받아 적는 ‘인류학적’ 연구가 나올 것이다. 이 글의 논지는 그 기획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유가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그 안에서 세월호가 왜 오랫동안 ‘사건’으로 지속되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체/한국 바깥까지 뻗어 있다. 침몰한 세월호는 시간의 흐름 속에 부식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떻게 해서든 잊지 않으려는 이들과, 무슨 수를 써서든 빨리 망각하려는 이들 사이의 간극은 깊어만 간다. 세월호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며 그것을 끝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지도자와 기득권자들의 뻔뻔함, 재난 관리 시스템의 허술함, 유가족에 대한 보상, 기만적인 세월호 특별법, 침몰한 세월호의 인양, 사람들의 무관심 등을 해답으로 제시하며, 서둘러 논의를 닫아서는 아니 된다. 각각의 설명들은 부분적으로 설득력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사이비(似而非) 인과관계이기 때문이다. 나쁜 정치지도자, 허술한 재난 관리 시스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통의 계량화, 국회만이 법을 만들고 국가만이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협소함 등의 요인 때문에 세월호가 ‘사건’이 되지 않으며, 그 중 몇 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세월호를 대규모의 교통사고로 되돌릴 수도 없다.

2. 사건 vs. 사건에 대한 설명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인류학의 전통적인 현장과 연구방법이 있다. (비교적) 소규모의 인간집단과의 (비교적) 장기간 함께 살면서 그들과 라뻬를 구축하면서 참여관찰 한다는 교과서적 설명은 논란의 대상이 아닌 고전적 정의이다. 이 방법론에 기대어 (비교적) 자연스럽게 인류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과 자리가 마련된다. 그러나 문제는 괄호 친 ‘비교적’이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한 세기 전 즈음에 서구에서 시작된 인류학의 매뉴얼은 굳이 비교적이란 형용사를 쓸 필요가 없었다. 지금 그 형용사는 곤혹스러움을 드러낸다.

세월호의 사건과 같이 한 군데의 장소로 특정하기 어렵고, 희생자/생존자/유가족들과의 지속적인 접촉 자체가 실질적·윤리적 문제를 품고 있는 주제를 만났을 때, 인류학의 현장은 어디이며 조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희생자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없는데다가, 엄밀하게 말한다면 생존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돕는 심리상담가와 정신의학자가 아닌 이상 참여관찰과 라뻬 형성은 불가능하다.⁴⁾ 세월호에 대해 쓰고자 하는 인류학자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글의 권위를 지탱해주던 조건들에 기댈 수 없다. (1) 장기간의 현지조사와 연구대상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한 ‘자기만의’ 자료 (2) (해외 지역연구의 경우) 지역의 언어와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 (3) 연구대상과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쓸 수 없다. 세월호의 인류학은 (세월호라는) 사건과 (세월호의) 현장을 재-정의해야만 한다.

세월호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현장(field)을 초과하는 ‘사건’과 그 현장의 의미는 무엇인가?⁵⁾ ‘사건’(event)과 사건에 대한 설명은 동시에 한 자리에 있지 못한다. 양자가 마주쳤을

4) 심리상담가와 정신의학자들 역시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이라는 의무로 인해 그들이 들은 것을 그대로 쓸 수 없다.

5) 콜로퀴엄 발표 자리와 질의응답 도중에서 밝혔듯이 본인은 세월호 사건을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적 개념어를 찾지 못했다. 다만 “사건은 사건적 자리가 아니다(일치하지 않는다). 사건은 자신의 자리의 원소들을 동원하지만 자기 자신의 현시를 거기에 덧붙인다.”(바디우 2013:303)는 통찰은 사건과 관련된 제 요인들을 나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때 서로는 서로를 내쫓는다. 특정한 문제를 사고나 개인의 문제라고 칭하지 않고 ‘사회’문제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그 원인과 책임의 소재가 특정한 요소 몇몇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문제, 청소년 문제, 가정폭력 문제 등은 각각의 노인, 청소년, 가정의 ‘문제’이지만, 그와 동시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건’이 사건으로 인식되는 이유 역시 역설적이다. 그 일이 일어난 순간 그에 대한 명확한 인과(因果) 관계를 찾을 수 없고 납득할만한 이유가 이미 마련되지 않았기에 ‘사건’이 된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 사건이 일어난 맥락과 이유를 더듬어 찾는 시도가 납득할만한 것이라 받아들여질 때 사건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닌 무엇인가의 ‘귀결’로 변하고 더 이상 사건이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가 “가만히 있으라.”라는 선장과 승무원의 방송 ‘때문에’ 일어났다면 그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끝나는 순간 세월호는 종결된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을 선장의 잘못된 지시 때문에 일어났다고 단을 수 있는가? 세월호라는 사건은 선장책임론이라는 설명을 내쫓는다. ‘4월 21일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장이 먼저 탈출한 것은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질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논쟁을 불러왔다. 사법적 판단 이전에 선언으로 제시된 대통령의 단죄 발언이 적절했는가? 그 논쟁의 밑바탕에는 선장/승무원의 대응 ‘때문에’ 세월호가 일어났다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논리는 판단이 깔려 있다. 세월호가 끝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사건을 재현(represent)하고 설명하려는 여러 가지 방향의 시도-즉 사건의 상연(present)-가 지속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지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은 인과관계의 규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소될 수 없는 ‘일어남’의 연속/이어짐이다. 인도네시아의 현대사에 점철된 폭력과 마녀사냥에 대해 분석한 인류학자 시겔(Siegel)은 마법(witchcraft)에 대한 통상적인 ‘설명’들이 사회·문화적 맥락을 동원하여 반(反) 사회적인 폭력을 해명하고 해소하려 시도했다며 비판한다. 시겔에 따르면 사건(event)과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이후에 고안된 가설과 설명방식을 세심하게 구분해야 한다. “사고(accident)란 아무 이유 없이 불쑥 일어나, 우리네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Siegel 2006:9)이다. 사건 이후 사건이 일어난 맥락과 인과관계를 사후에 더듬어 찾아 제도적·문화적·역사적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는 사건이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던 그 순간의 당혹스러움과 놀라움을 제거한다. 반면 시겔은 “어떻게 기괴한(uncanny) 순간들이 출현하며……. 중략... 그에 대한 어떠한 반응의 경로가 뒤따르는지”(Siegel 2006:26)를 추적하자고 제안한다.

세월호의 현장은 팽목항이나 단원고교, 안산, 광화문 광장만이 아니다. 사건과 사건에 대한 설명이 맞서고 서로를 거부하는 궤적이 세월호의 현장이다. 그 현장에는 여럿의 세월호‘들’이 늘어서 있다. 특별법으로, 단신과 폭식의 대립으로, 플래카드로, 천막으로, 인터넷의 막말로, 지방선거의 결과로, 그리고 학술대회의 포스터로. 그것들은 왜 어떻게 계속되고 또 멈추는가?

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본문에서 소개한 시겔(Siegel)의 제안과 겹친다. 또한 공적인 사건(public event)을 분석하기 위해 한델만(Handelman)이 제기한 모델로서의 사건(events of modelling), 상연으로서의 사건(events of presentation), 재현으로서의 사건(events of re-presentation)의 구분도 검토해볼 수 있다. 한델만은 사회적 상황의 모델로 제시되는 사건이 그것 자체의 전개임과 동시에 무엇인가의 재현으로 구축된다는 점을 지적한다(Handelman 1998:58-62 참조).

3. 자카르타의 세월호 : 오해(誤解)의 의미연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페리가 침몰하던 당시, 나는 자카르타의 빈민가에서 현지조사 중이었다. 1년 남짓한 기간을 TV없이 지냈던 나는 현지주민들보다 세상물정에 더 어두웠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큰 배가 가라앉았다는데 가족들은 무사한가요?”라는 질문을 통해 세월호를 접했다. 1만 3천~7천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서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선박의 침몰 사고는 매우 흔한 뉴스거리이다. 나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한국의 가족의 안부를 묻는 질문을 들었다. 그런데, 구조작업의 진척을 두고 답답한 보고가 이어지던 2-3일 후에 인터넷을 통해 세월호 ‘사건’을 접하고 침울했던 나는 매우 이상한 질문을 접했다.

“역시 한국은 대단해요. 진짜 빨라요. 아닌가? 진짜 같아요. 비디오가 진짜 같아요.”

참사를 두고 대단하다는 그와의 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TV와 신문을 통해 스치듯 세월호를 보았다. 사고 직후 중계 헬기와 해경의 배가 세월호를 둘러싼 모양을 보고 두 가지 가설을 세운 것이다. 첫째, 큰 배가 침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조감도와 같이 영상을 찍었다는 것이 대단하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수많은 선박 사고에 관한 영상은 모두 사고가 일어난 후의 바다를 비추거나 생존자들과의 인터뷰로 채워진다.⁶⁾ 한국은 발전한 나라이기에 사고현장에 대한 생중계가 가능했을 것이다. 둘째, 그러나 생중계가 가능했고 많은 구조선들이 세월호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배를 빠져나와 탈출한 승객 이외의 수많은 승객이 구조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발전한 나라인 한국의 방송국들은 컴퓨터그래픽 기술을 사용하여 ‘마치’ 배와 헬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내었을 것이다. 그 영상은 진짜 같았다.

기가 막혔던 나는 영상과 사진은 조작된 것이 아니며 많은 선박과 헬기가 사람들을 구조하지 못했다고 -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조리 있게 설명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는 - 인도네시아어로 답해주었지만 그는 “너는 지금 한국에 있지 않으니까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며 굽히지 않았다. 그는 세월호의 누락된 항적기록에 관한 논란을 예견했는가? 세월호를 멀리 인도네시아까지 실어 나른 그 매체는 투명하고 순수한 매체가 아니다.

자카르타에서의 세월호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도달했고, 단편적인 근거들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의미연관(意味聯關) 즉 이어질 수 없는 의미의 연결점이 등장한다. ㉠ 배가 가라앉는 그 순간이 생중계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 많은 선박과 설비가 있었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가? ㉢ 세월호가 침몰되는 초기의 사진과 동영상은 이후에 ‘만들어진’ 첨단 기술의 결과일 것이다. ㉣ 조작이 아니라는 나의 설명은 한국 (좁은 의미의 현장)에 있지 않은 한국인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온전한 설명을 할 수는 없다.

6) 아셉의 최초의 호기심어린 질문의 출발점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전 세계에 퍼진 [사진 1]과 앞 페이지의 코모도 섬 선박 사고에 관한 [사진 2]를 비교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어떻게 사고현장에 대한 생중계가 가능한가?’



[사진 1] 인도네시아의 주요 일간지인 콤파스에 실렸던 세월호 사고 자료 사진

<http://internasional.kompas.com/read/2014/04/16/1410432/100.Lebih.Penumpang.Kapal.Tenggelam.di.Korsel.Belum.Ditemukan>



[사진 2] 2014년 8월 롬복 섬에서 코모도섬으로 가던 페리침몰 사고 자료

<http://www.nydailynews.com/news/world/13-rescued-2-missing-boat-sinks-coast-indonesia-article-1.1907517>

세월호에 대해, ‘한국에서 많은 인명이 사망한 대형 선박사고가 났다’는 보고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40대 초반의 인도네시아 남자의 오해를 ‘설명’하기는 쉽다. 아셈(가명)은 텔레비전 드

라마를 통해 한국이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나라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선박사고에 대한 보도영상과 세월호 사고 영상과 사진을 성급히 비교하며 엉뚱한 설명을 제기했다. 그는 지역의 마을 개발프로젝트 사무실에서 잡무를 도우면서 해외에서 온 손님을 보조하는 일을 맡았기에 여기저기의 외국의 사정에 대한 자잘한 이야기에 정통했다. 그는 항상 ‘인도네시아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를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다. 위 대화는 그의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과 자국혐오/해외 동경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설명은, 위의 대화가 ‘일어났다’ 사실 자체 즉 의미-연관을 깨끗이 지울 수 없다. 그의 엉뚱한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설명에 반하는 대응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한국에서 세월호가 사건으로 오래 지속되었던 이유와 상동적(相同的)이다. 오해와 충돌이 이어지는 의미-연관.

‘자카르타에서의 세월호’라는 미미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없는 의미-연관의 궤적을 그린다. 세월호 사건은 이해 가능한 것/이해 불가능한 것이 뒤섞여 이어지는 계열을 형성했다. 세월호의 현장은 사고와 사건, 사고와 사고에 대한 ‘납득할만한/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 꼬리를 문 의미-연관이다.

4. 성긴 스케치 : 사고—구조하지 못한—구조하지 않은

세월호 페리가 침몰한 이후 그것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 사고, 참사, 사건 등등.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명명(命名)은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박민규 2014). 대형사고 혹은 참사이지만 그와 동시에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 통찰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조하지 않았다는 전환이다. 이는 심대한 궁지인데 국가가 자국민을 ‘의도적으로’ 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언술이 품은 무게는 엄청나다. 많은 이들이 세월호 사고를 두고 대한민국 전체의 구조적 병폐의 결과라 지적했고⁷⁾, 대한민국의 구조적 병폐라는 수식어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에도 자주 등장했었다. 그러나 당시 국가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받았을지언정 국민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받지 않았다.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판단은 ‘예외적’이어야만 하며 또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느낌이 지속되고 강화된다면 국민에 반(反)하는 국가 혹은 국가와 국민의 전면적 대립이라는 전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 궁지와 난관을 다시 써보자. 그럴 리가 없고 그래서도 아니 되지만, 세월호 사고는 마치(as if)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처럼 보인다.

세월호가 사고가 아니라 사건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궁지와 공백이었던 출발점은, 자카르타에서 아셉의 의문점이 시작된 지점과 유사하다.

7) 자세한 논증은 별개의 글로 미루어야겠으나, 이는 사회학자들에 의한 설명, 아니 사회학적 관점에 의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구조적 병폐’란 사고에 관여된 몇몇 당사자의 과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들의 결과임을 정확히 지적한다. 그러나 사회체계와 구조상의 미비함에 주요한 초점을 맞출 경우 왜 세월호가 서로 상반되는 견해 사이의 격렬한 충돌을 낳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사후에 들은 게 아니다. 배 안에 있는 이들과 동 시간을 보낸 거다. 지난 4월 세월호가 가라앉는 걸 전 국민이 봤다. 들은 게 아니라 읽은 게 아니라, 앉아서, 서서, 실시간으로 봤다. 매일매일 천천히, 고통스럽게 봤다.”(김애란 2014:12)

세월호 참사는 건물의 붕괴나 고속도로의 몇 백중 추돌사고처럼 한 순간에 ‘일어났던’ 과거형의 문장으로 도달하지 않았다. 그 과정은 길고 느리고 고통스럽게 지속되었다. 실시간으로 이어지던 세월호 사고에서는 삼풍백화점 사고에서와 같은 기적적인 생존자가 나오지도 않았고 행방 불명된 탑승자 중 바다에서 나오지 못한 이들이 아직도 있다. ‘도대체 왜 아무도 구조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은 ‘국가의 무능력’이라는 중립적인 서술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무능력을 가리키는 외마디 소리에 가깝다. 세월호 사고는 그 강렬함과 지속성으로 인해 ‘구조하지 못한’ 무능력이라는 설명방식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였다. 그 한계점이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자리이다. 출발점에서부터 세월호는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사건’이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세월호는 【사고 - 구조하지 못한 - 구조하지 않은】 사이에서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다. 그 충돌과 불연속이 세월호가 ‘여전히’ 사건으로 남아 있는 이유이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그 궁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언어와 실천이 아직 제시되지 못한 채, 사건을 사고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어졌기 때문에/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는 (여전히) ‘사건’이다.

세월호가 이어진 추이, 즉 세월호의 ‘현장’에 대한 길고 정교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⁸⁾ 아래에서는 사고 - 구조하지 못한 - 구조하지 않은 이라는 세 항을 중심으로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긴장을 대략적으로 나열하였다. 그 구분은 ① (선박) 사고로서의 세월호, ② 구조하지 못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참사, ③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

① (선박) 사고

- 세월호와 국가 경제의 침체
- ‘순수한 유족’ vs 불순세력
- 선장의 살인죄, 공판
-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일가 추적과 백골 발견
- 생존자 유가족 보상 관련 논쟁: 특혜, 시체장사
- ‘오뎅’, 단식에 반대한 폭식

세월호를 (선박) 사고로 보는 관점이 최초로 구체화된 것은 ‘경제침체-세월호’라는 이름으로 침몰 직후부터 등장했다. ‘놀러가다가 일어난 교통사고’, 청와대에서의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던 유가족에게 던진 순수 유가족이라는 범주, 대통령이 정식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월호 선장을 살인자로 명명하는 등에 계속 깔려 있었다. 이후 세모그룹 유병언 일가에 대한 종편의 집요

8) 앤쓰로피아 1호의 세월호 특집에 실린 이민영, 이도정, 박형진의 세 글 모두가 이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세월호의 인류학의 실질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보도와 백골로 발견된 유 회장으로 이어진다. 팽목항에서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유가족들의 단식투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충격적으로 등장한 ‘폭식’ 퍼포먼스와 세월호 희생자를 ‘오뎅’으로 빗대고 육조에서의 시체놀이 사진 등이 알려지면서 절정에 달하게 된다. 세월호 유가족을 중복 세력/사회 불만 세력으로 칭하는 근거 역시 세월호를 단순 (선박) 사고로 닫으려는 관점을 깔고 있다.

② 구조하지 못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사고

- 해경의 무능력/해경 해체
- 온전한 재해관련 컨트롤 타워의 부재
- 침몰 당일 대통령의 ‘행방불명’
- 인양비용 1000억~2000억
-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 세월호 사고 1주기에 도착한 선물: 세월호 인양 결정

세월호 침몰 사고를 한국사회 전반의 병폐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보는 시각은, 비교적 넓게 퍼졌다. 구호를 책임져야 할 해경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은 느닷없는 해경해체 선언으로 닫혔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세월호 특별위원회법이 통과되었다. 세월호 실종자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의 긴 침묵은, 1주기를 맞이하여 ‘엄청난 경제적 비용과 위험성을 무릅쓴’ 인양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된다. 제도 개선과 진실규명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현존하는 국가 즉 정부 내부에서 마무리하려 하였다.

③ 구조하지 않은 사건

- 해경의 기다림/언딘 특혜
- 교황 방한과 그의 행적 vs 대통령의 행보
- 유민아빠 김영오의 단식
- 기레기 vs. 손석희의 대비
-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세월호 특별법, 철저한 진상규명
- 바다 속의 세월호 선체와 실종자 9인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

구조하지 ‘않은’ 사건으로서의 세월호는 예기치 않은 사고 혹은 국가 선박관리 · 재난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이라는 통상적인 설명 방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표현이다. 장기간의 단식,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특혜’에 대한 거부와 현재의 국가기구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특별조사위원회 요구 등은 모두 ‘납득할 수 없음’을 그 배경으로 한다. (구조하지 않은’ 이라는 틀을 끝까지 밀고 나갔을 때 만나게 되는 규결은 세월호를 둘러싼 ‘음모론’이다. 사고 직후의 동영상에 잠수함의 그림자가 보였다는 보고로부터 시작하는 음모론은 인터넷을 통해 여전히 흘

러 다닌다. 나는 지금 ‘음모론’에 대해 논할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지니고 있지 않다.)

③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의 당혹감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①과 ②의 틀에 의해 제시되었던 ‘동의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모든 조치와 말들이 없었다면 1년 이상 이상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수많은 이들로부터 ‘사람’이라면 최소한으로 지니고 있어야 하는 ‘공감능력’을 결여한 비상식적인 반응으로 치부되었던⁹⁾ ①은 왜 사고 발생 직후부터 등장했던 것인가? ①은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③의 입장이 일종의 한계점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공백’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일관된 입장의 결과라는 오해(誤解)에 근거한다. 세월호 사고의 사건성이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음 자체가 아니라, 세월호 사고를 빌미로 한, 반(反)국가적·반(反)사회적 체제 비판적 실천이라고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①은 그리도 빨리, 과도하게, 강하게 증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①과③이 대립하고 그로 인해 서로를 강화시키는 상황에서 -사회유지와 재통합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유일한 해결책인 ②는 너무나 충분치 못하여 ①과 구분하기 어렵도록 겹쳐 있었다. 이는 상호소통 능력으로서의 정치(적 능력)의 실종이다.

빅터 터너(Victor Turner)에 의하면 사회 과정의 단위로서 사회극(social drama)가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네 단계는 위반, 위기, 교정, 분열의 재통합 혹은 재인식이다.¹⁰⁾ 1년 이상 완결되지 못하고 지속되어온 세월호는 사회극의 실패일 것이다. 왜 교황 프란치스코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천주교의 오랜 전통과 절차를 모두 깨뜨리고 1~2일 만에 세례를 주었는가? 교황이 보여준 파격은 세월호를 잊고 그것을 끝낼 수 있었을지도 모를 가능성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서의 정상적이라는 형용사로 감당할 수 있는 ‘사회문제’와 ‘사고’의 목록이 있다고 상상한다면, 세월호는 그 ‘바깥’에 있었다. 바깥에 있던 사건을 기존의 논리와 절차를 통해 닫으려는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실패의 근간에는 ‘사건’을 사고로 서둘러 되돌리려는 시도와 그에 대한 반발이 있다.

세월호는 현재진행형이다. 세월호의 인류학은 - 사고든 사건이든 뭐라고 명명하던 간에 -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추적해야 한다. 침몰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하여 여전히 남아 있는 9명의 실종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당위의 주장은 충분치 않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몇 가지 사실이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의해 밝혀질지도 모르고, 침몰된 세월호 선체는 인양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세월호는 여전히 ‘사건’으로 계속될 지도 모른다. 세월호의 인류학은 아직 오지 않았다.

9) 세월호 사고 직후 등장했던 ‘공감능력의 결여’라는 담론의 조건과 양태를 더 깊숙이 분석해야 한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내부의 (혹은 외부의) 타자와 희생자에 공감하는가/공감하지 않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특정한 사람이 다른 이와 얼마나 공감하는가의 여부는 결국 행위의 규준 혹은 예(禮)의 절차에 대한 토론이 될 수밖에 없다.

10)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어떤 규범이 위협받고 공공의 장에서의 도덕과 법, 규칙이 침범되었다(위반). 각 사회집단들 내부에서 투쟁이 시작된다(위기). 어떤 교정 기구가 흐트러진 집단의 지도층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 공적인 제의와 희생이 따르기도 한다(교정). 최종단계에서 사회는 재통합되거나 통합에 이르지 못하고 분화(分化)되기도 한다(터너 1996 참조).

참고문헌 및 자료

Handelman, Don, 1998, *Models and Mirrors: Towards an Anthropology of Public events*, Berghahn Books.

Siegel, James, 2006, *Naming the Witch*,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김애란, 2014, “기우는 봄, 우리가 본 것”, 『눈 먼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바디우, 알랭 (조형준 옮김), 2013, 『존재와 사건』, 새물결.

박민규, 2014, “눈 먼자들의 국가”, 『눈 먼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전규찬, 2014 “영원한 재난 상태: 세월호 이후의 시간은 없다”, 『눈 먼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터너, 빅터 (이기우 외 옮김), 1996, 『제의에서 연극으로』, 현대미학사.

엄기호, “[세월 읽기] 우린 세월호로 기억될 것이다” (경향신문).

오마이 뉴스, “교향, 세월호 유족 직접 세레……. "간절함에 마음 움직였다" 희생자 유가족 이호진씨, 17일 오전 세레 받아... 세레명 '프란치스코'.

이현정, “[세월호 1년 이현정 서울대 교수 특별기고] 기억의 칼날을 버리는 이유” (경향신문).

조선닷컴, “맨유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공식홈페이지 게재”.

조한혜정, “[조한혜정 칼럼] 애도, 그 환대와 생성의 장소” (한겨레신문).